



유채꽃밭서 즐기는 제주의 봄 6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를 찾은 관광객들이 활짝 핀 유채꽃밭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쌓고 있다.

강희만기자

탄핵심판 선고 눈앞... 제주 현안 앞날은

파면 인용·기각 따라 정부 기조 달라질 가능성 높아
제주 현안 지속 추진보다 원점 검토 후 새출발 무게
제2공항 등 도민 갈등 유발 사업 정책 변화 초미 관심

이르면 3월 중순 예상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제주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기각·인용 중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경험한 뒤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것인만큼 정부 정책 추진에 여러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 기각 후 직무복귀 시=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사업들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스스로 직무 복귀 시 국내 정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제안하면서 변수도 생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며 임기 단축이 포함된 개헌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약속이 실행될 경우 적극적인 정책 추진엔 한계가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한달 여 전이던 지난해 10월 24일 제주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제주 현안과 관련해 적극 지원 약속을 쏟아낸 바 있다. 신항과 제2공항 건설 관련 제주도와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고, 제주도를 UAM(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지원을 약속했다.

▶파면 결정되면 조기 대선... 새 정부 정책 우선될 듯=현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는 결론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60일 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대선을 통해 새롭게 들어선 차기 정부는 자체 정책 추진에 공을 들일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한다고 해도 이전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희미해질 수 있고, 야당이 정권을 교체하는 경우엔 원점에서 살펴보는 정책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 제2공항과 같은 도민사회 갈등이 있는 사안의 경우 정부 교체로 인한 변수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가며 대통령

실의 세종시 이전을 검토 중인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대통령실 이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수도권 소재 제주 출자·출연기관의 서울 용산 한국마사회 장학관으로 이전하려는 사업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제주도는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에 제주 공공기관의 통합공간을 마련해 이곳을 제주의 세계화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이전 현실화 가능성은 지켜봐야 하지만 실제 이전이 이뤄진다면, 정부부처와 대통령실이 세종시에 동지를 둔 상황에서 서울에 제주 기관들이 있어야 할 근거가 희박해진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제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의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 인구 감소세 ‘백약이 무효’

2월 기준 66만8205명... 한달 새 1255명 줄어
67만9016명 정점 찍고 22개월 연속 감소세

제주 지역 주민등록 인구 감소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5년 넘게 유지됐던 67만명 선이 붕괴된 지 한 달 만에 1255명 더 줄면서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제주 주민등록 인구(외국인 제외)는 66만8205명(제주시 48만6762명, 서귀포시 18만1443명)으로, 전월(66만9460명)보다 1255명 줄었다. 이는 2011년 이후 월 기준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지난해 2월(67만3665명)과 비교하면 1년 사이 5460명이나 급감했다.

이로써 제주 주민등록 인구는 2023년 5월부터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67만209명으로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5년 넘게 유지됐던 67만명 선이 붕괴된 지 한 달 만에 1255명 더 줄면서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4월 67만7115명에서 5월 67만7057명으로 줄어든 뒤에는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다. 올해 1월에는 66만9460명으로 내려앉으며 67만명 선이 무너졌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달 아동(0~17세) 인구는 10만4311명, 청소년(9~24세) 인구는 10만9012명, 청년(19~34세) 인구는 11만4867명으로 전월보다 각각 342명, 852명, 906명이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2만7880명으로 전월보다 407명 늘었다.

오은지기자

제주 수두 발생률 전국대비 4배

도, 감염병 10종 집중관리
감염 취약시설 등 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대비 발생률이 높은 수두, 백일해, 폐렴구균 감염증 3종을 집중관리 감염병 ‘가군’으로 지정해 대응한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구 10만 명당 감염병 3종 발생률은 수두 239.99명, 백일해 100.63명, 폐렴구균 감염증 2.3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발생률(수두 60.75명, 백일해 46.24명, 폐렴구균 감염증 0.9명)보다 높은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 수두 발생률은 전국 평균에 견줘 약 4배 높았다.

제주도는 감시가 필요한 ‘나군’ 감염병으로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균(CRE)과 성홍열, 신종후군출

혈열 등 3종을 선정했다. 또 해외 유입 가능성이 높은 ‘다군’ 감염병에 동물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AI),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엠프스, 뎅기열 4종이 지정됐다.

제주도는 수두 발생률의 95.7%, 백일해 발생률의 88.3%가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제주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학원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폐렴구균 감염증에 주로 걸리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제주도는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 컨설팅을 진행하고 발생 상황을 감시하는 등 집중관리 대상 감염병과 요주의 감시 대상 감염병에 대해 주기적으로 예방에 나선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필로폰 밀반입 외국인 적발... 4명 / 제주 산후조리원 선호도 낮아... 5명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2025제주들불축제는 ‘오름불놀이’ 없이 희망을 전하는 ‘오름향연-미디어아트쇼’로 진행됩니다.

2025 제주들불축제

| 기간 | 2025.3.14/금~3.16/일

| 장소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일대

주최/주관 : 제주시

* 주요행사 안내

- 3.14.(금) 개막공식행사, 개막콘서트 ‘희망드림’
- 3.15.(토) 디지털 불놀이 ‘오름향연’, 피날레콘서트 ‘희망찬치’
- 3.16.(일) 새봄, 새희망 모듬 나눠주기 등

3.14(금) 송가인

3.15(토) 양방언

3.15(토) 송지피

3.15(토) 딘블로우

3.15(토) 비지

3.15(토) 우사이드